

청소년 정신과 입원 환자들의 피부과 자문 의뢰에 관한 행태 분석 및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¹ 세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²
권현정¹ · 조현영² · 김영일¹ · 박경덕¹ · 정 현¹ · 박준수¹

Review of Psychiatric Adolescent Inpatient with Dermatologic Consultations

Hyunjung Kwon, M.D.,¹ Hyunyoung Jo, M.D.,² Youngil Kim, M.D.,¹
Kyungduck Park, M.D.,¹ Hyun Chung, M.D., Ph.D.,¹ Joonsoo Park, M.D., Ph.D.¹

¹Department of Dermat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Semyoung Hospital, Kyungsan, Korea

ABSTRACT

Objective : To review the patterns of the dermatologic consultations of psychiatric adolescent inpatient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matologic disorders and psychiatric disorders.

Methods : We retrospectively studied the data from 22 cases referred by psychiatric adolescent for a dermatologic consultation over 10 years in Daegu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compared with the data from 108 cases referred by the other department adolescent patients.

Results :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15.9.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1.44. The most common psychiatric and dermatologic disorder was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acne,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consultation was to ask for dermatologic disease or condition(54.5%) followed by to perform cosmetic procedure of patients need(40.9%) and to perform dermatologic test(4.6%).

Conclusions : More than just a cosmetic disfigurement, dermatologic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psychopathologic problems that can affect the patient. Increased understanding of biopsychosocial approaches and liaison among psychiatrists and dermatologists could be beneficial.

KEY WORDS : Dermatologic consultation · Psychiatry · Psychodermatology.

20

서 론

정신 신체 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은 육체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정신과 육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

문으로 과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인자로 생각되는 신체 질환에만 정신 신체 장애(Psychosomatic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모든 신체적 질환에 대해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어, 모든 신체에 발생하는 질환과 정신 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그 중, 피부과 영역에서는 원형탈모증, 아토피 피부염, 발모벽, 인공 피부염, 다한증, 만성 담마진, 건선, 심상성 좌창 등이 포함되며 정신 피부질환(Psychocutaneous disease)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나²⁾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청소년기는 자아상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며, 또래 및

Received: March 28, 2015 / Revised: May 27, 2015

Accepted: June 16, 2015

Corresponding author: Joonsoo Park, Department of Dermat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 Duryugongwon-ro 17-gil, Daegu 705-718, Korea
Tel : 053) 650-4161 · Fax : 053) 650-4891
E-mail : g9563009@cu.ac.kr

사회집단은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³⁾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또래와 가족에게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자존감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⁴⁾ 10대와 20대에 있어서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은 외부로 노출되는 반흔 등 상처로 인한 심리적 악영향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청소년기는 2차 성징으로 인해 많은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피부질환에 대한 적절한 증재 및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본원 정신과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들 중 피부과에 자문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과에서 행해지는 청소년의 자문 양상을 살펴보고, 자문행태 및 자문 이유 등을 고찰하여 정신과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들의 피부과적 및 정신과적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 법

1. 대 상

2004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0년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피부과로 의뢰된 청소년 환자의 자문 의뢰 총 2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같은 기간 타과에 입원하여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청소년 환자 108명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정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법에도 청소년을 다양한 연령으로 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인 만 13세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진료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진단이 모호하거나 타과로의 협진을 재 권고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방 법

연구기간 동안 정신과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 185명 중 피부과에 자문 의뢰된 22명의 환자의 병록지 및 진찰소견을 참고로 하여 연령별, 성별, 자문 이유 및 피부 질환별 분포, 정신과적 질환의 분포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같은 기간 동안 정신과와 피부과를 제외한 과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 7,026명 중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환자 108명과 비교하였다. 자문이유는 1) 일반적 피부질환이나 피부의 이상상태 2)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미용 3) 피부 생검이나 피내 검사 등의 피부과적 시술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피부질환의 분포의 분석을 위한 진단명 분류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행한 피부과학 6판 교과서의 분류를 참고하였으며, 정신과적 진단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TR(이하 DSM-

IV-TR)에 근거한 분류를 참고하였다.

3. 분 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9.0 for Windows (SPSS,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타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사이의 피부과 자문 행태 비교를 위해서 Chi-square test를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의뢰의 GAF score 비교에는 one sample T test를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연령별 및 성별 분포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정신과 청소년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3~14세 환자가 5명(64.7%), 15~16세 환자가 8명(36.4%), 17~18세가 9명(40.9%)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15.9세였다. 성별은 남자 9명(40.9%), 여자 13명(59.0%)로 남녀 비는 1 : 1.44로 나타났다. 반면,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타과 청소년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3~14세 환자가 24명(22.2%), 15~16세 환자가 32명(29.6%), 17~18세 환자가 52명(48.1%)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66명(61.1%), 여자 42명(38.9%)로 남녀 비는 1 : 0.64로 나타났다.

2. 입원환자 중 자문 의뢰 환자의 비율 및 평균 입원 일수

총 입원 환자 중 피부과 자문율을 연구하기 위해 정신과 청소년 환자의 피부과 자문율과 타과 청소년 환자의 피부과 자문율을 비교 하였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연구 기간 중 총 185명이 입원하였으며, 이 중 22명(11.9%)의 환자에서 피부과 자문이 의뢰되었으며, 163명(88.1%)에서는 의뢰되지 않았다(Table 1). 타과 환자의 경우 총 7,026명이 입원하였으며, 이 중 108명(1.5%) 환자에서 피부과 자문이 의뢰되었으며, 6918명(98.5%)에서는 의뢰되지 않았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피부과 자문율이 타과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또한 입원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타과 청소년 환자의 경우 평균 9.8일, 정신과 청소년 환자의 경우 평균 42일로 관찰되었다.

3. 정신과 질환 분포

연구기간 동안 입원 환자 중 피부과로 자문 의뢰되지

Table 1. Comparison of dermatologic consultation ratio between psychiatry and non-psychiatry

Consultation	Psychiatry	Non-psychiatry	$\chi^2(p)$
	No. of patients (%)		
Yes	22 (11.9)	108 (1.5%)	109.173
No	163 (88.1%)	6,918 (98.5%)	(<0.05)
Total N	185 (100%)	7,026 (100%)	

Table 2. Distribution of psychiatric disorders

Psychiatric disorders	No. of patients in non-consulted patient(%)	No. of patients in consulted pati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68(42.7)	5(22.7)
Bipolar disorder	42(25.7)	8(36.4)
Conduct disorder	31(19.0)	4(18.2)
Schizophrenia	11(6.7)	3(13.6)
Conversion disorder	7(4.3)	1(4.6)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4(2.4)	1(4.6)
Total	22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dermatologic disorder in psychiatry

Dermatologic disorders	No. of patients	Percentage(%)
Acne	9	40.9
Eczema	3	13.6
Atopic dermatitis	2	9.1
Urticaria	2	9.1
Xerosis cutis	2	9.1
Drug eruption	1	4.6
Ingrowing nail	1	4.6
Toxic erythema	1	4.6
Infection	1	4.6
Total	22	100.0

않은 163명의 경우 주요우울장애 및 양극성 장애의 기분장애가 각각 68예(41.7%), 42예(25.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행실장애가 31예(19.0%), 기타 조현병, 전환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 23예(14%) 관찰되었다(Table 2). 이러한 정신 질환의 분포는 피부과로 의뢰된 환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요우울장애 및 양극성 장애의 기분장애가 각각 8예(36.4%), 5예(22.7%), 행실장애가 4예(18.2%), 조현병이 3예(13.6%), 전환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각각 1예(4.5%)에서 관찰되었다.

4. 피부과 질환 분포

정신과 청소년의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은 여드름으로 9예(40.9%), 다음으로 습진이 3예(13.6%),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건조증, 두드러기가 각각 2예(9.1%)였으며, 약제에 의한 발진, 손발톱질환, 독성홍반, 감염 질환이 각각 1예(4.5%)의 분포를 보였다(Table 3). 반면, 타과에서 자문 의뢰된 청소년은 습진이 25예(23.1%), 감염성 질환이 23예(21.3%), 여드름은 18예(16.7%)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5. 자문 이유 및 GAF 척도

정신과에서 자문 의뢰된 청소년 및 타과에서 자문 의뢰된 청소년 모두 아토피 피부염과 접촉피부염과 같이 환자의 피부과적 피부 증상과 징후에 관하여 자문한 경우가 각각 12예, 81예로(54.5%, 75.9%) 가장 많았으며, 여드름과 같이 환자 요청에 의한 미용시술이 9예, 18예(40.9%, 16.7%), 그리고 피부 생검이나 피내 검사 등의 피부과적 시술을 위해 의뢰

Table 4. Distribution of dermatologic disorders in non-psychiatry

Dermatologic disorders	No. of patients	Percentage(%)
Eczema	25	23.1
Infection	23	21.3
Acne	18	16.7
Atopic dermatitis	9	8.3
Drug eruption	7	6.5
Urticaria	6	5.6
Mass	5	4.6
Toxic erythema	3	2.8
Alopecia	3	2.8
Vasculitis	3	2.8
Callus	1	0.9
Hyperpigmentation	1	0.9
Ingrowing nail	1	0.9
Total	108(100.0)	22(100.0)

하는 경우가 1예, 8예(4.6%, 7.4%)로 관찰되었다(Table 5). 기타 이유의 경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용 시술 목적 자문 의뢰의 경우 정신과 환자의 미용 목적 자문의뢰군이 타과 환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Table 6). 정신과 환자의 미용 목적 의뢰가 많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입원 당시 GAF 척도와 의뢰 당시의 GAF 척도를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입원 당시에는 평균 44.1111점으로 조사 되었으나, 의뢰 당시에는 56.164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청소년환자 중 피부과로 의뢰된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과에 입원한 피부과 의뢰환자들과 비교를 해보았다.

연령별분포는 15.9세로 청소년기를 환자군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보다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남녀 비를 보면 1 : 1.44로 여성의 피부과 의뢰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의뢰된 환자 중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기분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여자에게 많이 이환 되는 기분장애 환자의⁹⁾ 피부과 의뢰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 중 자문의뢰환자의 비율을 보면 타과보다 정신

Table 5. Reasons for consultation

Reason	No. of patients in psychiatry(%)	No. of patients in non-psychiatry(%)
Dermatologic disease or condition	12(54.5)	81(75.9)
Cosmetic procedure of patient's request	9(40.9)	18(16.7)
Dermatologic test or procedure	1(4.6)	8(7.4)
Total	22(100.0)	108(100.0)

Table 6. Comparison of consultation for cosmetic request from between psychiatry and non-psychiatry

	Psychiatry	Non-psychiatry	p-value
	No. of patients(%)		
Cosmetic request	9/22(40.9)	18/108(16.7)	(<0.05)

과 환자의 자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이는 정신과 환자의 경우 타과 환자에 비해 장기 재원을 하게 된다는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원의 정신과 환자 평균 재원 일수는 42일이었으며, 타과의 경우 9.8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특성 상 입원 초기에는 질병의 악화 등으로 기타 질병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나,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적 질병이 호전되고, 입원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본인의 피부과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고 자문의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정신과 환자의 피부과 자문시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 30일 이후에 의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과로 의뢰된 환자의 정신질환 분포의 경우, 기분장애가 가장 높았으며, 행실장애, 조현병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정신과에 입원한 전체 청소년 환자의 질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 질환의 경우 기분장애 및 신체 이형 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⁹⁻¹²⁾ 신체 이형 장애의 경우 입원 치료가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신체 이형 장애와 피부과 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과 질환 분포는 여드름이 가장 높았고 아토피피부염, 피부건조증, 두드러기 순이었다(Table 3).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의뢰된 환자들의 질환 분포를 보면(Table 4) 습진과 감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토피환자의 경우 심한 경우 우울감 또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¹³⁻¹⁵⁾ 정신과의 피부과 자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여드름이 가장 높은 빈도의 질환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청소년 환자의 경우 여드름 유병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군에서도 여드름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하지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정신과 환자에서의 여드름 환자 의뢰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조군의 경우 치료하는 질환으로 인해 주치의가 의뢰를 한 환자가 많은 반면, 정신과 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해서 미용 시술을 적극적으로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 중 적극적으로 미용 시술을 원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Table 5, 6). 하지만 이는 정신 질환 환자의 특성이라고 고려되기 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 재원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미용 의뢰된 환자의 GAF를 입원 당시와 의뢰당시에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입원 당시에는 평균 44.1111점으로 조사 되었으나, 의뢰 당시에는 56.164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초기에는 미용 등에 관심을 갖기 어려우나 회복기가 되면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된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치료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이러한 점들이 미용으로의 관심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까지 저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뢰된 피부과 의뢰환자를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는 표본숫자가 적다는 점이다. 청소년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입원치료가 적어 10년간 입원환자수가 185명 밖에 되지 않아 그 중 피부과 의뢰환자의 표본숫자가 적었다. 이는 다기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사회적 노출을 꺼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의 특성상, 다기관 연구 또는 대규모연구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는 후향적인 조사였다는 점이다. 환자들의 병력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저자들이 정확히 알고자 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정신건강의학과와 피부과의 사들이 정신신체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Jafferany 등¹⁶⁾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피부과 모두에서 정신질환과 피부과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며, 이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가 피부에 대한 다양한 정신신체학 연구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 (1) Morgan HG. General medical disorders. In: Lader MH, edi-

tors. Handbook of Psychiatry: Mental Disorders and Somatic Illnes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3. p.14-28.

- (2) **Koblentz CS.** Psychosomatic concepts in dermatology: A dermatologist-psychoanalyst's viewpoint. *Arch Dermatol* 1983; 119:501-512.
- (3) **Zisook S, Sbear K, Irwin S.** Human development throughout the life cycle. In: Sadock BJ, Sadock VA, editors.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2007. p.40.
- (4) **Cuffe SP.** Assessing adolescents. In: Dulcan MK, editors. *Dulcan's Text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2010. p.47.
- (5) **Gieler U, Gieler T, Kupfer J.** Acne and quality of life - impact and management. *J Eur Acad Dermatol Venerol* 2015;29:12-14
- (6) **Ritvo E, Del Rosso JQ, Stillman MA, La Riche C.** Psychosocial judgements and perceptions of adolescents with acne vulgaris: A blinded, controlled comparison of adult and peer evaluations. *Biopsychosoc Med* 2011;5:11
- (7) **Kellett SC, Hawkrodder DJ.**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mpact of acne and the effect of treatment with isotretinoin. *Br J Dermatol* 1999;140:273-282.
- (8) **Krejci-Manwaring J, Kerchner K, Feldman SR, Rapp DA, Rapp SR.** Social sensitivity and acne: the role of personality in negative social consequences and quality of life. *Int J Psychiatry Med* 2006;36:121-130.
- (9) **Judd LL, Akiskal HS, Schettler PJ, Endicott J, Maser J, Solomon DA, Leon AC, Rice JA, Keller MB.** The long-term natural history of the weekly symptomatic status of bipolar I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2002;59:530-537.
- (10) **Conrado LA, Hounie AG, Diniz JB, Fossaluza V, Torres AR, Miguel EC, Rivitti EA.** Body dysmorphic disorder among dermatologic patients: prevalence and clinical features. *J Am Acad Dermatol* 2010;63:235-243.
- (11) **Phillips KA, Siniscalchi J, McElroy SL.**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somatic symptoms in patients with body dysmorphic disorder. *Psychiatr Q* 2004;75:309-320.
- (12) **Phillips KA, Dufresne R.** Body dysmorphic disorder: A guide for dermatologists and cosmetic surgeons. *Am J Clin Dermatol* 2000;1:235-243.
- (13) **Arima M, Shimizu Y, Sowa J, Narita T, Nishi I, Iwata N, Ozaki N, Hashimoto S, Matsunaga K.** Psychosomatic analysis of atopic dermatitis using a psychological test. *J Dermatol* 2005; 32:160-168.
- (14) **Hashiro M, Okumura M.** Anxie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comparison with normal controls and among groups of different degrees of severity. *J Dermatol Sci* 1997;14:63-67.
- (15) **Ando T, Hashiro M, Noda K, Adachi J, Hosoya R, Kamide R, Ishikawa T, Komaki 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sychosomatic scale for atopic dermatitis in adults. *J Dermatol* 2006;33:439-450.
- (16) **Jafferany M, Stoep AV, Dumitrescu A, Hornung RL.** Psychocutaneous disorders: A survey study of psychiatrist's awareness and treatment patterns. *Southern Medical Journal* 2010; 103:1119-1203

연구목적

정신신체의학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모든 신체적 질환에 대해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 피부과 영역에서는 원형탈모증, 아토피 피부염, 발모벽, 인공 피부염, 다한증, 만성 담마진, 건선, 심상성 좌창 등의 질환과 정신과적 질환과의 연관성이 특히 강조되며, 정신 피부질환(Psychocutaneous disease)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으로 인해 많은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피부질환에 대한 적절한 증재 및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저자들은 정신과 청소년 환자들의 피부과적 질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에서 피부과로 자문 의뢰되는 청소년 환자들의 자문의뢰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에 입원중인 청소년 환자 중 피부과에 의뢰된 22명의 환자와 타과에서 의뢰된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및 성별 분포, 자문율, 이환된 피부질환, 자문이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정신과 입원 환자 중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15.9세로 관찰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1.44로 관찰되었다. 정신과에서 의뢰된 청소년 환자들의 진단의 경우 정신과적으로는 기분장애(59.1%), 피부과적으로는 여드름(40.9%)이 가장 많았다. 타과 청소년에 비해 정신과 청소년 환자의 피부과로의 자문율이 유의하게 높았고(11.8% vs. 1.5%), 환자의 요청에 의해 자문이 의뢰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9% vs. 16.7%).

결 론

다양한 정신병리적인 문제와 피부과적 질환이 연관되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환자의 거부나 의사의 항정신약물 사용 시작에 불편감을 이유로 질환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정신과에서는 피부 문제를 경미한 증상으로 생각하여 간과할 수 있으므로, 두 과 간의 적절한 정보 교환 및 협진 체계를 마련하여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 : 정신신체 증상 · 청소년 · 피부과 자문.